



창의·성실·책임

적십자간호대학보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PRESS

제 82 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모임 주간 : 안은숙 편집장 : 서혜록 인쇄인 : 김준배 발행처 : 적십자간호대학보사 우편번호 110-102 서울시 중로구 평동 85-15 전화 2129-1172(직통)

2004년 12월 3일 (금요일) <1>



긴급처분

금년해가 가기전에 남은예산 긴급처분 명년자금 쟁기려고 쓸데없이 돈풀리며 말쑥한도 뒤엎고 주차장에 잔디까네 무참하게 버려지는 서민들의 땀과 눈물 불필요한 소비말고 적정예산 책정하라

누굴 위한 절약인가

교육지출 24세기장 조망제한에 무산되고 생계수단 영입차량 10부제가 발목잡네 실효성없는 절약정책 높아가는 시민원성 주체별로 수요분석 사용실태 파악으로 수요중심 정책추진 합리적인 위기해결

비정규직 배양해서 대한민국

노동인구 절반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경영해고 일순위에 법적보호 제외대상 실상가장 개악안에 확대되는 그들영역 약탈법을 폐지하고 보호법안 마련하여 극보까지 아니어도 고용안정 보장하라

시각장애인 외면하는 지하철

기: 최근 지하철에서 일어난 한 시각장애인의 실족사과 관련, 시각장애인 안전대책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지하철 공사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지: 정부에서 지침과 예산을 보내주질 않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하겠어요.
기: 무책임한 지하철 공사는 안전펜스 설치, 유도블럭 모양통일 등 조속한 조치를 취해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 적간라인 00기자였습니다.

제21대 총학생회장단 당선 '함께 커가는 적간인'

지난 11월 4일(목) 오후5시 강의실 204호에서 제 21대 총학생회장단 총유세가 있었다. 이날은 박성남(제 20대 총학생회 총무부장)의 진행아래 기호 1번 이명은(1-D), 이은영(1-A) 후보와 기호 2번 한의정(1-D), 권수진(1-B) 후보의 공약 발표와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각 후보자의 공약을 살펴보면 먼저 기호 1번은 첫째, 타 학교와의 교류 들깨, 토익·토플 학점 인정 강화개설 및 모의시험 셋째, 수강신청 전 강의계획서 확인을 내세웠고 기호 2번은 첫째, 타 학교와의 동아리 교류 활성화 들깨, 복지 시설 증진 셋째, 면학 분위기 조성의 공약을 들고 나왔다. 이번 제 21대 총학생회장 선거는 '함께 커가는 적간인'이라는 기조를 들고 나온 기호 2번이 당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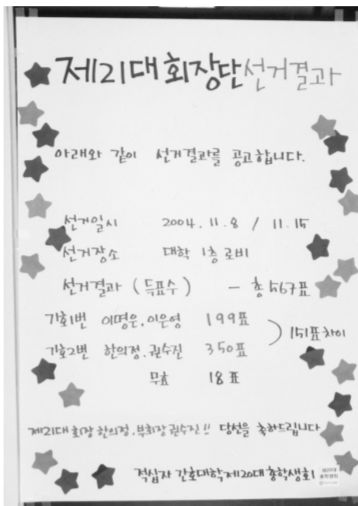
11월 24일(수) 학보사실에서는 당선 후 인터뷰가 있었는데 먼저 공약의 구체적인 실현 방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 학교생활에서 동아리 활동은 소속감을 주고 활력을 주는 것이라며 기존의 간호와 특성을 살



▲제21대 우)총학생회장 한의정(1-D), 좌)부회장 권수진(1-B)

린 동아리 보다는 좀더 학우들의 흥미와 관심에 맞는 동아리를 만들고 싶다고 언급했다. 또한 복지시설 증진의 공약에 대해서는 학우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동아리간다는 자세로 임하려 한다고 하였으며 학우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힘을 다짐하였다. 또 을 위해서는 시범 1~2주 기간동안

특정 공간을 지정해 개방할 것이라고 하였다. 당선소감을 묻는 질문에서는 당선에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학우들에게 귀를 열고 수렴하여 열려있는 마음가짐과 함께 나아간다는 자세로 임하려 한다고 하였으며 학우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힘을 다짐하였다. 또 을 위해서는 시범 1~2주 기간동안



▲제21대 회장단 선거 결과

생각하며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번 선거는 5년만에 단일후보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우들의 저조한 투표율로 인하여 재투표와 부재자 투표의 과정은 거치는 어려움을 겪었다. 다시 한번 학우들 참여의 필요성이 강조된 행사였다. 취재부

제58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촛불점화를 하는 모습

지난 11월 3일(수) 오후2시 본교 지하2층 강당에서 제 58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거행되었다. 조감출 산학협력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학우와 교직원

원 및 내·외 귀빈 약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회, 국민의례, 촛불점화, 나이팅게일 선서, 기념사, 교가제창, 폐회 순으로 이루어졌다.

김모임 학장은 기념사를 통해 병원·의료제도의 개혁자였던 나이팅게일을 본받아 미래 간호사로서 긍지를 갖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회의 다원화에 따른 간호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실무를 철저히 준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제 몸을 태워 주위를 밝혀준다는 봉사와 희생, 그리고 헌신의 의미를 가진 촛불을 선포로부터 이어 받음으로써 임상실습에 앞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간호를 할 것을 다짐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채 1시간이 안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진행되어 선서식의 의미를 되새기는데 아쉬움을 남겼으나 많은 학부모와 학우들이 참석하여 선서식을 빛내주어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취재부

안전교구 작품 전시회

지난 11월 8일(월)~12일(금)까지 5호선 서대문역 역사 내에서 응급 및 재해 간호 교과목의 일환으로 실시된 안전교구 작품 전시회가 있었다.

이날 전시회에서는 작품 약 60여점이 전시되었는데 5개의 우수작이 선정되었다.

수상작으로는 2-D 박재희의 5명, 2-B 유성희의 4명, 2-B 정중희의 3명, 2-A 박선영의 4명, 2-C 김광순의 5명이 있다.

이번 전시회는 실생활에서 이용될 수 있는 안전교구를 학우들이 직접 창작하여 제작한 것으로 재치 있는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분만이 30~50%가량 줄었으며, 출산율이 1.17명으로서 세계최저수준이다. 이러한 추세로 가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국가발전이 우려되는 상황에 있음에도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한다. 이는 전문직을 가진 여성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간혹 여성 예비일 수 없다. 이러한 출산기피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간혹 지적해 좀더 초점을 맞추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우선시 된다. 사교육비 등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육아가 힘들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거나

문이 제일 주된 이유이고 또한 복귀했을 때 불이익,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정부 지원금(월 40만원)이라는 점 등이 작용한다.

이와 더불어 영유아 보육시설이 불충분하다는 것도 원인이 된다. 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명명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직장보육시설은 설치율이 39.2% 정도에 불과하다. 직장보육 시설이 있다고 해도 이용이 한정되어 있어 한 대학병원의 경우 영유아 약 116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 사용시간 역시 1인당 1일 9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강권하는 사회속의 간호직

한 명만 낳아서 알차게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병원의 가족수당을 살펴보면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각 20,000원 정도에 불과 하는 액수의 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이는 아이 한명을 기르는데 평균적으로 드는 비용과 비교해 볼 때,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보는 것이 옳겠다.

다음으로, 육아 휴직에 따른 문제점을 들 수 있겠다. 병원에 10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 30대의 한 간호사에 말에 따르면 아이를 낳길 곳이 마땅치가 않아 육아휴직을 내려고 했는데 병원은 선례가 없다며 못 준다고 했다고 한다. 이렇듯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이지만 실제 노동자가 사용하지 못한 매우 힘든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은 사용자 육아휴직을 주지 않기 때

이러한 출산기피 현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출산 장려금과 육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지원책으로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 데 이는 문제해결을 위한 일시적인 방안은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실례로 프랑스 등의 나라가 각종 지원책을 제공해도 출산율이 그리 높은 편이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드는 기회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소득세 절감을 적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엄마가 직장을 다니는 가정보다는 엄마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높은 면세율을 적용한다면 아이들을 엄마가 직접 키우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여겨진다.

◆동문소식◆

▶ 지난 10월 15일(금) 오후5시에 동문회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날은 연간행사 및 회계보고가 있었으며 새 임원 선출을 하였는데, 회장으로는 정영재(18회) 동문이 부회장으로는 이영인(27회), 김미주(38회) 동문이 선출되었으며 그밖에 총무에 김민경(48회), 회계에 김현주(39회), 서기에

지선미(53회) 동문이 선발되었다.

◆알림◆

▶ 동문회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 홈페이지 주소 : www.alumni.redcross.ac.kr
- ID : 학번(검색을 통해 알 수 있음)
- PW : 주민번호 뒷자리



한마리 나비의 날개짓으로
지구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킨다는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눈에 띄지 않는
학보사의 작은 몸짓이
적십자간호대학의 역사를 만듭니다.

법 / 추 / 지 / 앞 / 는 / 사 / 람 / 들 / 학 / 보 / 사

☑ 학술 - 공동연구논문을 게재한다(전시자·안은숙·백희정)

입학전형 경향분석 및 개선방안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대학의 설립이념 아래 인격을 도야하고 진리를 탐구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할 인재 양성에 있다.

그러나 최근 학생유치의 문제가 각 대학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많은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됨에 따라 우수한 학생유치와는 거리가 먼 단순한 숫자 채우기에도 급급한 실정에 이르고 있다. 대학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학생 미충원 사태에 대한 방안으로 각 대학들은 나름대로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 하나가 대학 내 학과의 통·폐합 또는 대학간의 통·폐합을 주축으로 하는 구조조정이 시도되고 있으나 극히 일부에 국한되어 있다. 다른 대안으로 기존의 입학자원이 아닌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학생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강구되고 있다.

본 대학에서도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여 실시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입학전형 방법을 분석, 평가하고 그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본 대학의 최근 6년간 입학전형방법의 변화 추이를 조사하고, 전형방법(일반전형, 일반정원 내 독자전형, 정원의 특별전형)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차이를 구

명하여 입학전형방법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3. 연구 대상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본 대학의 입학전형 요강을 분석하였고, 입학성적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대학 2003년도 신입생 287명의 전형별 입학성적과 본 대학 1학년 전 학년의 평균평점을 이용하였다.

4. 연구 결과

1) 본 대학 입학전형 방법의 변화
본 대학 입학전형 방법의 변화과정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전형방법별로 정원, 응시자격, 성적 반영비율을 조사·비교하였다.

(1) 전형방법과 입학정원의 변화
전체 입학정원은 1998년 270명이었으나, 2002년부터 대학·전문대학 졸업자의 정원의 특별전형의 인원이 입학정원의 10%에서 20%로 변화됨에 따라 299명으로 증가하였고 일반정원에는 변화 없이 일반전형의 인원(30명에서 33명까지)을 독자전형의 방법으로 선발하였다. 또한 2001년까지는 주간과 야간의 비율이 각각 120명씩이었으나 2002년부터는 주간 학생의 졸업 후 취업률이 높은 점을 반영하여 주간과 야간의 입학정원수를 각각 140명과 100명으로 조정하였다.

(2) 정원의 특별전형 및 정원내 전형 중 독자전형 지원자격 및 정원

정원의 특별전형과 정원내 전형 중 독자전형의 지원자격별로 주·야간 정원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정원의 특별전형에는 ① 대학·전문대학 졸업자 전형, ② 농·어촌 특별전형, ③ 재외국민과 외국인인 입학성적, 이 중 대학·전문대학 졸업자 정원은 2001년까지는 입학정원 240명의 10%인 24명이었으나,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원수의 증가를 허가함에 따라 2002년부터는 20%로 증원하였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3%로 인원수에 변화가 없었다. 2002년부터 주간정원이 야간정원보다 많아진 결과, 주·야간 동일 비율에 의해 선발한 독자정원 수도 주간이 34명으로 야간(25명)보다 많았다. 특히 대학·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주간이 2001년도의 12명에서 2003년에는 28명으로, 야간은 12명에서 20명으로 선발인원이 증가하였다. 또한 국가사책에 부응하고 다양한 계층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실시해 오던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응시자격에 2002년부터 북한 귀순동포를 포함하여 이들에게 입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원내 전형 중 독자전형은 본 대학의 이념에 부합하는 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적십자유공화동자, 성직자 및 수도자 전형을 실시하였고, 지금까지 여성전용의 전문직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남녀 누구나 선망하는 전문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남학생에게 문호를 개방하였다. 또한 2002년부터는 국제적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적으로 영어능력우수자를 독자전형에 포함하였다.

(3) 전형별 성적변영요소 비율
일반전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과 내신성적인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을 반영하였으며, 2001년까지는 그 비율을 60:40으로 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50:50으로 수정하였고, 정원의 특별전형에서 대학·전문대학 졸업자의 성적변영요소 전적대학성적과 면접점수의 비율은 2001년까지 80:20이었으나 2002년부터 70:30으로 하였다.

농어촌 특별전형의 경우 2001년까지 학교생활기록부성적과 면접점수만을 80:20으로 반영해 오다가 주·야간 동일 비율에 의해 선발한 독자정원 수도 주간이 34명으로 야간(25명)보다 많았다. 특히 대학·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주간이 2001년도의 12명에서 2003년에는 28명으로, 야간은 12명에서 20명으로 선발인원이 증가하였다. 또한 국가사책에 부응하고 다양한 계층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실시해 오던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응시자격에 2002년부터 북한 귀순동포를 포함하여 이들에게 입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 전형별 입학성적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입시전형별 입학성적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전형별로 2003년도 입학성적과 1학년 성적을 조사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1) 전형별 입학성적과 1학년 평균점
일반전형에서 수학능력성적과 내

신성적은 모두 주간, 야간Ⅱ(간호조무사 미소지자), 야간Ⅰ(간호조무사 소지자)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입학 후 1학년 성적에서는 주간과 야간의 성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본 대학의 학업성취도에 입학시험 점수 외의 요소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정원의 특별전형 중 대학·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성적변영요소는 내신성적과 면접점수였으며, 주간과 야간의 성적이 야간보다 높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입학 후 성적에서도 주간이 야간보다 평점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진적 대학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본 대학에서도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또한 농어촌 특별 전형의 경우 수학능력성적은 주간이 야간에 비해 거의 50점 가량 높았으며, 일반전형과 1학년 성적은 모두 주간이 야간보다 높았다. 그러나 내신성적은 야간학생이 주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여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내신성적은 학업성취도의 예측에는 기여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었다.

독자전형 중 적십자유공자, 남학생 전형의 경우, 주간이 야간보다 수학능력성적과 입시합계는 모두 높았다. 남학생전형에서는 내신성적에서 야간이 주간보다 다소 높았다. 1학년 성적은 모두 주간이 야간보다 높았다.

수학능력성적은 일반전형 주간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원의 특별전형 중 농어촌 전형 주간, 독자전형 중 적십자 유공자 주간

의 순이었고, 가장 점수가 낮은 군은

남학생전형 야간이었으며, 다음으로 농어촌특별전형 야간이었다. 또한 내신성적은 영어능력우수자 주간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성직자 및 수도자, 영어능력 우수자 야간, 농어촌 특별전형 야간, 주간, 적십자 유공자 주간, 일반전형 주간 순이었다. 내신성적이 가장 낮은 군은 적십자유공자 야간과 남학생전형 주간이었다.

일반전형 중 대학·전문대학졸업자의 경우 성적변영요소로는 내신성적과 면접점수였으며, 주간과 야간의 성적이 야간보다 높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입학 후 성적에서도 주간이 야간보다 평점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진적 대학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본 대학에서도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또한 농어촌 특별 전형의 경우 수학능력성적은 주간이 야간에 비해 거의 50점 가량 높았으며, 일반전형과 1학년 성적은 모두 주간이 야간보다 높았다. 그러나 내신성적은 야간학생이 주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여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내신성적은 학업성취도의 예측에는 기여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었다.

독자전형 중 적십자유공자, 남학생 전형의 경우, 주간이 야간보다 수학능력성적과 입시합계는 모두 높았다. 남학생전형에서는 내신성적에서 야간이 주간보다 다소 높았다. 1학년 성적은 모두 주간이 야간보다 높았다.

수학능력성적은 일반전형 주간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원의 특별전형 중 농어촌 전형 주간, 독자전형 중 적십자 유공자 주간

의 순이었고, 가장 점수가 낮은 군은 남학생전형 야간이었으며, 다음으로 농어촌특별전형 야간이었다. 또한 내신성적은 영어능력우수자 주간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성직자 및 수도자, 영어능력 우수자 야간, 농어촌 특별전형 야간, 주간, 적십자 유공자 주간, 일반전형 주간 순이었다. 내신성적이 가장 낮은 군은 적십자유공자 야간과 남학생전형 주간이었다.

요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정원의 특별전형 중 대학·전문대학 졸업자의 입학성적 반영요소인 전적대학 성적과 일반전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즉 전적대학의 학점이 본 대학의 학업성취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입시 성적전행방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간주된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새로운 입학전형 개선방향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졸업후 취업문제를 고려하여 야간인원을 모두 주간으로 선발하는 방안이나 일반전형에서 간호조무사자격증소지자의 모집인원 축소, 다양한 독자전형 대상자 개발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2. 전형일정에 대해서는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수시모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수시모집 실시 시에는 전체 전형에 모두 적용하여 실시하기 보다는 시범적인 실시와 이를 평가하여 해당 전형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3. 일반전형에서는 현행대로 학생부성적과 수학능력시험성적을 50%씩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수학생 우선 유치를 위한 수시모집 시에는 학생부성적과 면접만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정원의 특별전형 중 대학/전문대학졸업자 전형에서는 대학간의 편차가 심하므로 면접비율을 높이고 간호조무사 자격증 미소지자의 경우, 수학능력성적이나 내신성적보다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 설

교육의 기회 평등과 고교 등급제

최근 '고교 등급제' 논의의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가령 그것은 '고교 등급제'가 명시적으로 실시되면 일종의 자본주의적 계급 제도가 생겨날 것이라는 비판적 진단으로부터, 엄연하게 존재하는 학교간 학력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불가피한 제도로 인정해야 한다는 옹호론까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학교간 학력 격차를 보여주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01년 초중고 교생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와 공개되고, 일부 대학이 고교간 학력차를 반영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학생을 뽑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으로써, '고교 등급제' 논란은 더욱 확산 일로에 서게 되었다.

고 주장하고 있다. 한 대학 당국자는 "차라리 교육과정평가원의 객관적인 자료로 학교간 학력차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나을지도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는 "현재 상황에서 내신만으로 학생을 뽑으라고 하면 대학에서는 고교 등급제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야당 국회의원도 "대학이 고교간 차이를 파악할 수 있고 속 학교 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성적에 의한 일률적 고교 등급제가 아니라더러도 학교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차별성을 인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하면 30여 년 전에도 입된 평준화 제도도 함께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사실 이 제도의 취지는 속직 일류고를 없애

고교간 격차를 해소한다는 데 있었다. 하지만 이번 평준화 지역 안에서도 고교간 학력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평준화 보완 요구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학생, 학부모에게 부분적으로 학교 선택권을 인정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입제도 개선안 논의가 고교 등급제 도입 여부에 집중되는 것은 국민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지양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대안으로 특목고 및 비평준화 지역 우수고 재학생 등을 위해 현행 교과 성적 우수자 특별전형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교사 학력 추천제 도입, 대학 단위 입시 체제의 단과대 단위 분권화 등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등급제를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대학으로 하여금 고교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신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력 격차가 평준화 제도 때문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격차에 본질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고교 등급제'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 대학은 우수한 실력을 갖춘 이들이 자율적으로 선발하여 국가 경쟁력에 대비해야 하기도 하지만, 이미 사회 경제적 결정론에 빠져 버린 교육의 시장 원리에 저항하는 '공직' 기능을 수행할 뉘도 사회로부터 요청받고 있다. 따라서 평준화 제도의 약점을 점진적으로 보완해가되, '고교 등급제'의 명시적 도입은 유보하는 것이 좋다. 자율과 경쟁력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이 시장 원리에 귀속되고 만다면, 일부 학생들의 수혜와 대다수 학생의 불이익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교육의 기회 평등이라는 국가적 대명제를 위해서라도, 경쟁력을 의외로 하는 경제 우위의 기획인 '고교 등급제'는 유보되어야 한다.

청각손상 예방이 최우선

"죽은사람 앞에 두고 말조심하라"는 말은 청각은 흔히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머무르는 감각이며 예민해서 손상받기 쉽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즘 mp3가 대중화되고 휴대전화도 이러한 기능이 생기면서 손쉽게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이어폰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것에 노출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청각 손상의 위험정도 증가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청각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각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음과 청각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고막은 전달된 소리를 쿠션작용을 통해 완충시킨 후 귀속으로 들어보냄으로써 내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고막이 신축성을 가지고 완충작용을 하려면 고막 안팎의 압력이 서로 같아야 하는데 이어폰으로 귀를 막고 되면 고막 안팎의 압력이 다른 상태에 소리가 전달되면 고막의 신축성을 발휘하지 못한 채 소리를 내이로 들여보내게 된다. 결과적으로 청각세포는 손상을 입게 되고 초기에는 청각 왜곡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은 난청으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면 노년층에 한정되어 나타났던 난청이 소음공해와 이어폰 등의 과도한 사용으로 젊은층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청이 생기면 소리를 증폭시켜 주는 보청기를 생각하지만 이는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므로 내이장애난청이나 노인성난청일 경우에는 보청기 착용보다 수술이 청각을 되찾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술은 비용이 비싸고 수술 후 장기 언어재활치료가 필요할 단점이 있으므로 청각이상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우선이다. 그러면 청각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우선 이어폰은 하루 2시간 정도만 사용하고 노래방이나 게임방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은 귀마개를 하는 등의 대처법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제 등 일부 약물은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뇌막염, 중이염 등 귀에 염증이 생기면 난청 발생률이 증가하므로 이 또한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귀로 가는 혈액순환을 나쁘게 하여 청각 신경을 상하게 하는 담노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청각 손상 예방법 중의 하나이다. 전 세계 생·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망과 복음을 전해준 헬렌켈러의 명언 중 '나는 종종 성인들이 단 며칠간만이라도 맹인과 귀머거리가 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맹인이 되면 시력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또 귀머거리가 되면 소리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청각의 소중함을 잘 알고 지내고 있다. 거리의 소음이나 TV 볼륨 등 청각을 손상시키는 요소가 만연한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조금 더 청각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많은 위험요소 속에서도 청각 손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영은 수습기자 (passioning185@hanmail.net)

간호사의 진로

새로운 분야 등장, 선택 기회 증가

요즘은 박사학위 소지자도 백수가 될 만큼 취업의 길이 비좁기만 하다. 이것은 간호계에도 예외일 수는 없다. 평소 일러져 있는 분야로만 지원자가 물리는 것이 이런 현상을 더욱 극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학술부에서는 졸업 후, 간호사로 진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르는 간호대학이 설립되어 간호사를 양성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인 간호사 수요와 그만큼 간호사로서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다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활동할 수 있는 곳이 많지만, 병원에 국한된 경우가 많다. 그러면 병원 이외에 간호사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살펴보자.

◆가정 간호사
우리나라는 1980년대 들어와 경제 성장으로 인한 사회 문화적 발달이 국민의식 전환을 가져와서 건강요구의 다양한 증대 현상을 나타냈다. 또한 평균 수명 연장 등 성인병이나 만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를 초래하였고, 여성의 사회 진출과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전통적이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면서 가정 간호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가정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① 항공분야 간호사가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 ② 임상연구센터 연구간호사의 모습 ③ 학생과 상담하고 있는 보건교사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후 면허증을 소지하고,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의 교육을 추가로 받아 숙련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 분야에서는 기본간호를 소지하고,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의 교육을 추가로 받아 숙련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 분야에서는 기본간호를 소지하고,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의 교육을 추가로 받아 숙련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호사가 직접 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는 대상자, 병원, 정부의 입장에서 장점이 많아 현재와 같은 병원중심 가정 간호 사업에서 지역중심으로 변화·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분야 간호사
항공분야 간호사는 조종사, 승무원, 지상근무요원, 승객들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비행과정과 쾌적한 비행환경을 조성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항공분야 간호사는 항공 종사자들의 신체검사를 통해 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도우며, 지속적인 상담 및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최상의 건강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무엇보다도 환자후송 간호는 빠른 응급구조를 위한 간호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 간호사
연구 간호사는 임상시험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하는 사람으로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의 원칙에 따라 임상연구, 시험의 조정과 수행에 책임을 갖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년 이상의 임상경력과 소정의 임상시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한점이 많아 연구 간호사의 입지가 확고하지는 않다. 그러나 최근 점차적으로 임상시험의 증가와 임상시험 규정이 개정되어 연구 간호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다양한 역할로 간호사의 참여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건교사
보건교사는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의 시험을 통과한 자격조건이 없다. 현재는 별도의 교육기관 없이 공군이나 민간항공사 자체적으로 트레이닝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는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기획 - 간호의 전문성 확보위한 근거기반 간호에 대해 알아본다

과학적 연구결과의 실무적용 통한 질 높은 건강서비스 제공

얼마 전 국제한인간호재단 창립기념 국제학술대회가 “근거기반간호를 통한 간호의 우수성”이라는 주제로 11월 1~2일 서울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있었다. 대한간호학회와 대한간호협회, 한국시그마타타우, 국제한인간호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근거기반간호(Evidence Based Nursing)에 대해 심층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에 기획부에서는 이것의 실행 전략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야 한다는 것에 그 핵심을 둔다. 이는 간호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 하겠다.

근거기반 간호의 수행단계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객관적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첫째, 특정한 환자문제나 상황을 진술하는 대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만들고 둘째, 질문에 답이 될 만한 연구증거물을 체계적으로 찾아야 하며 셋째, 그 연구문헌의 타당성·관련성 및 유용성을 평가하여 넷째, 환자문제 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



▲국제한인간호재단 김기자 창립이사장

른 정보들과 연구결과를 통합한 후(임상전문성, 환자의 선호도 등) 다섯째, 결정된 근거중심의 실무를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그 결정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주제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보고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간호사는 필요한 연구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과 비판

적 분석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간호사의 실무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환경이 때 근거기반 간호의 의미와 효과가 부각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간호사는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간호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유용한지 생각해보고, 관련 문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본 후,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유용한 근거들을 간호 실무에 적용하는데 힘써야 한다. 그러나 임상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실무에 대한 지식은 어디에서 얻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간호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의사로부터’, ‘직관에 의해서’, 그리고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에 의해서 등을 꼽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약 39%가 연구결과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일반적 출처를 저널이라고 하면서 거론한 것들은 특정 간호단체에서 발간한 잡지였고 간호연구 저널은 아니었다고 하니, 임상 간호사들이 간호연구 문헌을 찾고 그로부터 최근의 임상실무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에는 상당한 개인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라 하겠다. 연구는 연구자의 것, 실무는 임상 간호사의 몫으로 나뉘어져서 많은 간호사들이 연구라는 단어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막연한 부담감을 가지는 것이 아마도 이러한 이유일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근거기반 간호실무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려면 연구자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연구 성과를 내야하고, 실무자는 간호중재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연구결과를 찾아내는 훈련이 돼야 한다. 이는 병원마다 석사학위 전문 간호사, 박사학위 소지자를 적극 채용해 근거기반 간호 실무를 이끌어 나가도록 지원함으로써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에겐 비교적 최근에 소개된 개념이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Evidence-Based Nursing’이라는 저널이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근거 기반 사고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을 비롯하여 전문가들의 전략이나 평가 등도 소개되고 있어 근거기반간호를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실질적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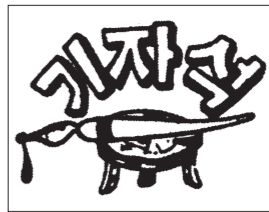
▲국제한인간호재단 창립총회의 모습

이러한 근거기반 간호의 시작은 대학에서부터 학생들에게 창의적이

고 도전적인 사고력을 키워주는 교육을 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 여건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무엇이 할 수 있는 적절한 생각에서 출발해 작은 가능성부터 하나씩 찾아나가는 사고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간호연구에 있어 다학제간의 협력은 필수적이며 자연스러운 추세인 만큼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과정에 간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비용 면으로 효율적이면서 질 높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하자는 것은 세계적인 이슈이며, 그 핵심 역할을 해낼 인력은 바로 간호사이다. 근거기반 간호실무를 펴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라는 확신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 나아갈 것을 기대해 본다.

기획부



1996년 5월 6일 학생 자치권 보장 투쟁 중 학교 측의 탄압과 기만적 태도에 분노하며 온몸에 휘발유를 붓고 저항하던 중 화상을 입고 운명학 학생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이를 보장하는 학칙들은 먼 세상 이야기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전국 전문대학 교육개혁 대책위원회가 지난 11월 8일 전문대의 현행 학칙이 학생자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개정 권고를 요구하면서 이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전문대의 민주성이 바닥까지 떨어진 원인을 알아보자.

하는게 현 대학의 실정이다.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자료와 한국 전문대학교 협의회가 발간한 <전국대학교육 10년사>의 통계를 보면 전국 115개 2년제 대학 중 ‘학생단체 조직에 대한 사전 승인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110개로 전체의 95.7%에 달한다. 이러한 학칙은 대부분 학교 측에서 등록금 인상이나 정치적 내용의 학생운동이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킨다고 인식하여 이를 제재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그러면 학생자치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해야 할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우선 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어떠한 일고를 요구하면서 이 문제를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전문대의 민주성이 바닥까지 떨어진 원인을 알아보자.

민주성 상실한 학생자치권 인정시급

첫째,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주어야 할 학생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점이다. 학생들이 무관심하게 대표를 선출하고, 학생회를 학생들을 대변하는 대표자로서가 아닌 행동을 규제하는 감시자로 인식하여 학생들과의 거리감이 형성 되었을 뿐더러 학교가 학생자치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가 가지는 권리는 절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의 목소리가 아닌 모든 학생들이 소리 높여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개정 권고가 받아들여져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여 둘째, 학교 측의 독단적인 결정 방식이다. 대다수의 대학들의 운영체제는 학생은 학교문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모든 활동은 학교의 통제 하에서 해야

리가 당연히 쟁취해야 할 기본적 권리임을 인식하여 그것을 되찾기 위해 한미음으로 주장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학생과 담당교수로 구성된 중앙감사위원회를 조직하여 학교가 학생자치권의 공평하고 객관적인 운영 여부를 우려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됨에 따라 학생회는 더욱 위축되게 되어 활동의 폭이 좁아지고 자치권도 학교에 빼앗겨 학교 운영이 학생 중심이 아닌 학교 편리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일이 계속되면서 학생들의 학생회에 대한 신뢰도 또한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는 권리는 절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의 목소리가 아닌 모든 학생들이 소리 높여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개정 권고가 받아들여져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여 둘째, 학교 측의 독단적인 결정 방식이다. 대다수의 대학들의 운영체제는 학생은 학교문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모든 활동은 학교의 통제 하에서 해야

이명은 수습기자 <passiongir185@hanmail.net>

국가브랜드 중요성 인식 통한 대한민국 이미지 고양

2004 국가브랜드 가치 순위

순위	국가	브랜드가치(달러)
1	미국	3조2188억
2	독일	1조7518억
3	일본	1조775억
4	프랑스	1조775억
5	영국	1조670억
6	캐나다	7320억
7	이탈리아	7028억
8	네덜란드	6124억
9	중국	5972억
10	벨기에	4418억
11	홍콩	4037억
12	한국	3737억
13	스페인	3381억
14	스위스	2787억
15	싱가포르	2565억

순위 국가 브랜드가치(달러)

16	멕시코	2354억
17	스웨덴	2156억
18	대만	2138억
19	호주	1903억
20	오스트리아	1899억

자료: 산업정책연구원, 통계청(국제통계연감)

기업브랜드 가치

이름	가치(억 원)
삼성전자	21조7796억
SK텔레콤	8조1936억
현대자동차	6조5013억
KT	5조4640억
LG전자	3조1845억
포스코	3조1680억
기아자동차	2조2154억
KTF	1조9756억

자료: 산업정책연구원

로 각국 브랜드 가치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올해 3737억 달러로 12위를 기록했다. 2002년 9위, 작년 10위에서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다. 그 원인으로서는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 하락은 올해 홍콩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국가 브랜드란 어떤 국가 또는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믿는 이미지다. 한국 브랜드는 ‘한국 주식회사’라는 기업이 만든 모든 제품에 붙는 브랜드인 셈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국브랜드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최적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자.

88 서울올림픽, 2002 한·일 월드컵을 전후해 국가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말이 봇물을 이뤄 국가 브랜드가 중요하다는 게 상상이 되었음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는 잘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해외에선 ‘코리아’보다 삼성·현대·LG 등 기업 이름이나 제품 브랜드가 더 잘 알려져 있는 곳이 흔하다.

지난 10일 산업정책연구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6개국을 포함한 36개국을 대상으

11위에 오른 것도 있었지만 2002년 월드컵 개최 후 우리나라에 대한 심리적 친근도가 급격히 떨어진 것

책상미명



적십자간호대학은 휴지통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캠페인 52



한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쁜 생활로 인해 가족을 소홀히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항상 우리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식탁을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혜록 기자 <roginzip@hanmail.net>

문화 - 일본 다큐멘터리 특별전을 취재하였다.

Japanese Documentary Film Festival

- 역동의 기록, 매혹의 필모그래피 -

'한, 일 우정의 해 2005'를 코앞에 두고 지난 11월 19~28일 광화문 일주아트하우스 아트큐브에서는 사전행사(pre-event)로 일본의 20세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16편을 한자리에 모아 소개하였다. 아직 우리나라는 다큐멘터리 문화가 잘 정착되지 않은데 비해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큐멘터리가 꾸준히 발달되어 오고 많은 이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이번 행사에 소개되는 작품 중에는 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그 시기도 다양하고 전 세계적인 다큐멘터리계 거장들의 작품만을 엄선하여 준비하였다. 때문에 우리나라 다큐멘터리 발전을 위한 좋은 지침이 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풍성한 볼거리가 될 것이라 여겨 직접 취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혹의 필모그래피라고 할 수 있다. 포스터가 인상적으로 눈에 들어온다. 전쟁과 산업화로 얼룩진 일본의 20세기를 상징하듯 어두운 포스터와 측면에 상영시간표가 세워져 있고 많은 이로부터 찬사를 받으며, 화생 스로가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현명한 교사상을 제시하는 작품이다. 1954년, 일반인들에게 카메라 렌즈는 낯설고 두려울 것이란 우려가 민망할 정도로 초등학생 아이들은 전혀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은 채, 자유로운 표정과 행동을 하며 그들의 세상을 보여주기 위하여 호평을 받았다.

같은 날 상영된 사토 마코토 감독의 <아가 강에 살다>는 일본 본토 북쪽 지방으로 이어지는 강가에 미니미터빙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일상과 현실을 포착하고 이런 고통



▲일본 다큐멘터리 특별전의 홍보 포스터



▲한 관객이 관람을 위해 표를 구입하고 있다.

을 외면하는 현실을 강력히 고발하고 있다. 존 존커만의 <우민추:노인과 바다>는 81세 어부 이토카즈 시게루의 삶과 섬의 주민들이 바다와 싸우면서 지켜온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다루고 있어 신선함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감독인 김덕철의 <건너야 할 강>에서는 한일 양국관계와 역사적 상호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데라다 아스노리 감독의 <내 아내는 필리핀 여자>는 동경 어느 술집에서 호스텔을 하는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감독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도 하다. 전후 일본 윤락녀들의 삶을 조명하는 이마무라 쇼헤

이의 <마담 응보로의 생활> <가라유키 상>과 하라 가즈오의 <극사적 에로스>도 눈에 띄며 하라 가즈오의 <천왕의 군대는 진군한다>에서는 천왕의 전쟁발발 책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있기도 하다.

이밖에도 가메이 후미오 감독의 <전사들> <고바야시 잇사> 쓰치모토 노리키 감독의 <어느 기관사 조수> <길 위에서> 신도 가넨오 감독의 <어느 영화감독의 생애: 미즈구치 겐지의 기록>도 상영되었다. 냉해로 피해를 입은 마키노 마을의 현황과 원인을 살피고 후쿠야마키리 이주하여 그곳에 사는 아홉 가구를 인터뷰한 신스케 감독의 <일

본국 후쿠야마키리 마을을 끝으로 일본다큐멘터리 특별전은 막을 내렸다.

모든 작품이 제 각각의 주제를 담고 있는 듯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후 일본사회의 암울한 이면을 공분분모로 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적인 생활에 초점을 맞춘 작품들임에도 일본의 시대상을 함께 접목시켜 그 작품성을 높이고 있다.

촬영기법과 편집기술 역시 감독들마다 개성이 있고 작품들마다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준다.

기껏해야 TV를 통해서 보는 시사 고발이나 자연 다큐 프로그램 이외에는 다큐멘터리를 제대로 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감안할 때 내년 한,일 우정의 해를 잘 활용하여 활발한 교류를 통해 일본의 발달된 다큐멘터리 문화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본의 앞선 연출력을 잘 가공하고 우리 스스로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분명 우리나라도 다큐멘터리가 비 허구적인 기록영화로써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부



PHOTO FOUR SEASON

버스는 이미 떠났다고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버스는 또 올 꺼니까요. 모든일이 그렇습니다. 이번엔 실패했다면 다음 기회를 기다리세요. 벌써부터 포기하는 약한 모습. 단신당지 않습니다.

문화부

일주아트하우스 아트큐브에 들어서면 한 일본 여인의 어두운 사진 위로 붉은색으로 '역동의 기록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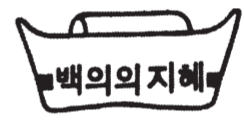
내 자식이 아님에도...

내가 다니는 교회에는 목사님께서 말티즈와 요크셔 두 마리의 강아지를 키우고 계시다. 어느 날 말티즈가 어린 생명을 배에 간직하게 되었고 곧 3마리의 귀여운 강아지를 낳게 되었다. 모든 교인은 그 3마리의 강아지를 너무 예뻐했는데 조금 지나서 문제가 생겼다. 요크셔가 말티즈의 새끼를 자신의 새끼인냥 돌보는 것이었다. 젓도 안 나올 텐데 젓을 주는 시늉을 하지 않나... 근데 조금 이상했다. 요크셔의 젓에서 젓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라 재빨리 병

책임감의 필요성

주위를 보면 낯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키운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에 사람들이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 각종 대중매체에서는 애완동물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우리의 문화와 생각이 많이 변한 것과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과 많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애완동물의 개념은 단지 남은 음식을 먹거나 식용으로 인식되었다.



백의지혜
애완동물
다음제목: 크리스마스
원고매수: 3매
원고마감: 2월 20일까지

하지만 요즘엔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애정을 쏟는다. 특히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나 독신자들은 더할 수 없는 가족애를 느낀다. 그러나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새끼를 보고 싶은 마음에 우울증이 걸려 오랫동안 보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뉴스에서 자신의 자식을 키울 능력이 없어 냉동실에 넣어 죽였다는 보도를 보았다. 정말 말 타깝고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개보다 못한 놈이라는 말이 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했는데 정말 개보다 못한 짓을 해서야 되겠는거라는 생각을 해본다. 만약 못하다고 쳤을 때 우리 그 따뜻한 모습을 배워야 하노라고 권고하고 싶다.

(1-B 김선홍)

늘어날수록 버려지는 애완동물도 늘어나는 것 같다. 종종 TV를 보다보면 버려진 강아지들을 키우는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눈앞에 그려진다. 할머니들은 아프다고 버려진 강아지, 사고 난 강아지들을 데려다 키운다.

이런 프로그램을 보자면 애완동물을 자신의 편의대로 키우다 버리는 무책임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그에 앞서서 책임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2-D 조아라)

문화단신

<책>
기쁨의 탄생
사람의 비극에서 벗어나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담긴 지침서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고대의 사랑 이야기부터 현대의 문학작품과 심리학의 연구에서 나온 생생한 상담사례를 통해 현대인들의 정신적 상처를 탐구하고 있다. 저자가 제시하는 새로운 사랑의 지도는 사랑을 비극적인 기억이 아닌 영원한 기쁨으로만 들어줄 것이다.

<전시>
고암 이응노 탄생 100주년 기념전
동양미술의 거장 고암 이응노의 예술혼과 깊이를 서울 덕수궁 미술관에서 느껴볼 수 있게 되었다. 초기작부터 말년작 150여점이

수용과 모색의 4가지 주제로 다루어지며 수목화, 폴리주, 문자주상 등의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현대적인 동양화를 만들어 내기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던 화백의 열의는 물론 그의 삶과 예술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간: 2005년 2월 13일까지)

<공연>
오페라 '나비부인'
문화 소외계층의 초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국립극장으로 서울 오페라단의 자살까지를 엮고 있다. 전통적인 한국의 여인을 연상케 하는 나비 부인의 순종적인 사랑은 오늘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줄 것이다. (기간 12월 8일~11일)

영화평 -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가슴 벅찬 세상과의 특별한 만남

배낭하나 달랑 메고 무작정 떠나 보는 여행. 20대라면 누구나 한번쯤 소원해 봤을 기분 좋은 일탈일 것이다. 얼마 전 이런 우리의 소망을 고스란히 스크린 위에 현실화시킨 한편의 영화가 개봉되어 이목을 끌고 있다. 게다가 카스트로 정권의 반미 친공 노선을 열렬히 옹호함으로써 쿠바 혁명의 상징이 된 '체 게바라'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알려져 더 큰 기대를 안고 극장을 찾았다.

23살의 젊은 의학도 푸세는 친구처럼 의지하는 형 알베르토와 함께 남미 횡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1952년 겨울 '포테로사'로 불리는 낡은 모터사이클에 몸을 싣는다.

안데스 산맥을 가로지르고 칠레 해안을 따라 사막을 건너 아마존까지 8000Km에 이르는 거리를 4개월만에 모두 밟고 오겠다는 당찬 포부가 여느 청년들과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은 현실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하나뿐인 텐트가 태풍으로 날아가 칠레에서는 오토바이 정비사의 아내에게 추근거렸다는 오해를 사 쫓겨나게 된다. 앞선데 도전적으로 유일한 이동수단인 포테로사마저 소매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하지만 이들은 곳곳에서 걸어서 여행을 이어가고, 그러면서 이념 때문에 살던 땅에서 쫓겨난 부부와 집 없이 착취당하며 살아가는 토착민들, 격리되어 살아가는 나병환자 환자들까지 보지 않는 세상의 약자들과 그 가슴아픈 삶을 만나게 된다.

처음 계획보다 4개월이나 더 걸려 마친 여행에서 푸세는 이제껏 자신이 보지 못한 세상의 불합리함에 분노하며 새로운 의지와 열정으로 불타오른다. 영화는 그가 훗날 쿠바 혁명의 역사적인 지도자 '체 게바라' 이고 자신의 이상을 위해 싸우다 결국 총살당한다는 것을 말해주며 막을 내린다.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란 제목에 걸맞게 푸세는 일기를 쓰듯, 자신이 여행하며 느끼는 진솔한 느낌과 감정을 날레이션을 통해

생생하게 들려준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가 보는 세상을 관객도 함께 공감하며 느낄 수 있게 된다. 또한, 두 청년이 겪는 시행착오에서 보여주는 억지스럽지 않은 웃음 또한 이 영화의 또 다른 매력일 것이다.

세계적으로 위대한 공산혁명가의 일대기를 다뤘다는 거창한 타이틀에서 벗어난 점이 아쉬움을 남기긴 하지만 심각한 개인주의에만 몰두해 있는 우리 세대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작품이다. 이번 겨울 방학에는 우리도 이런 의미 있는 여행을 계획하여 마음까지 풀릴 수 있는 따뜻한 간호사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황인혜 기자
(hwanginhee@hanmail.net)

선배님의 말씀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조성순 선배님, 16회 졸업생>

모교 방문 40년 만에 후배 학생들을 대하면서 느끼는 점이 많았고 젊은이들의 문화와 한국 문화의 변화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우리 후배들의 꿈을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는 우리 후배들이 마음속에 화교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담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학교는 재학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사랑해야만 빛이 나며 학교에 대한 자존감이 사회의 밑거름이 되는데 본인들에게 속해있는 학교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희망과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배로서 모교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는 적십자 간호대학을 나온 것이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분명히 깨달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본교의 적십자의 정신은 우리들의 실생활과 떼어 놓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간호학이란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학문이기도 하며 간호사는 많은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간호사, 교수, 보건교사, 사회복지사, 정치가, 의료 선교사, 성직자 등 많은 상향을 가진 사명이기도 하며 실생활에서도 많은 봉사과 헌신의 여유를 가집니다.

문화의 발달과 최첨단의 과학 발달에 넓은 세계를 손바닥위에 놓고 볼 수 있는 세계관 속에서 우리 후배들의 열정에 난 다시 화창시절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영어가 세계 공용어이므로 열심히 영어 공부하기를 부탁하

고 싶습니다.

영어의 독해력은 자신의 노력이며 기 본구조(Structure)만 알면 아주 쉬운 언어입니다. 미국 대통령인 Benjamin Franklin은 초등학교 2년의 정규과정만 거치고도 5개 국어를 습득했다는 유명한 자가 독 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후배들은 B. Franklin 보다 7~8배의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 훨씬 쉬운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동문들의 이민생활의 특징은 적 십자의 열정과 어느 동문을 만나든지 한 형제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성 어 거스틴의 덕목들(Moral principles)이 이민 생활을 잘 적응케 한 비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절제(Moderation), 용기(Courage), 정의(Justice), 신중(Prudence)입니다. 물론 수없이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봉사과 헌신하면서 얻은 이 4가지 덕목의 반복 된 연습은 정직과 성실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물질 문명과 바쁜 세상을 대면해서 열심히 적응하며 간호대학 시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나는 전문 지식을 자신을 위해서만 도구화 하지 말고 적십자대학의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원하는 선배이기도 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후배들과 같이 즐거움을 나눌 수 있었던 기회에 감사합니다. 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과 열심과 정직을 잘 조화하기를.....

<가로 세로 퍼즐>

가로열쇠

1. 여름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곤충. 질병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되기 또한.
2. 2면 사설의 주제, 교육의 등급화로 약속권이 되고 있는 사회문제
4. 미니홈피로 젊은층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사이트
6.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e-campus에 있는 메뉴 중 하나. 호기심천국, 꿈익는 마 을 등이 있다.
8.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가 속해있는 지역
11. 태아에게 모체와 가스교환 및 각종 유기, 무기질 용액과 면역체를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는것- placenta
13. 지난 11월 3일 1학년 학생들이 모두 치른 행사. 00000 선서식
15. 우리 학교 교육이념은 OO, 밖에 이다.

세로열쇠

1. 이번 문화면에 영화평으로 쓴 영화의 제목 00000다이어리
2. 여자의 무기는 눈물과 이것
3. 추운겨울에 지붕에 주렁주렁 열리는 열매는 열매기둥
5. 조선시대까지만해도 우리나라는 엄격한 OO이 존재했다.
7. 각도의 변화와 근에 길이 변화를 주며 하는 운동(ROM exercise)가 여기에 속 하죠)
9. 관계자와 출입금지 지역을 일컫는 말
10. 아름다운 청년
12. 동호회끼리 웹상에서 약속을 정해 만나는 것을 일컫는 명칭
13. 비정상적인 호흡음.천식음이기 호기시에 나타남- rales
14. 밑반찬으로 간장OO, 양념OO 등 종류가 다양하다.
16. 단신에서 소개하고 있는 도서는 OO에 관련된 지침서이다.

기간 : 2005. 2. 28까지
학보사로 가져오시면 정답자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멈추지 않는 사람들 학보사